

‘뇌물직원’ 1심 유죄 후 ‘파면’→향소심 ‘무죄’→그 다음은 ‘복직’?

광주시교육청 ‘무리한 징계’ 다시 도마위에

시교육청 “징계 안하면 월급 줘야... 불가피한 조치”

광주시교육청의 무리한 징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재판 중 파면으로 파임징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일부 관련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교육청 공무원 윤모씨와 전직 교장 김모·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

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뇌물수수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는 점,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

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교육청 이모씨와 이들에 게 뇌물을 줬던 전직 1년을 선고받았던 업체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량을 낮췄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 교장, 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 시설 공사 등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하도록 돕고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향

소심 판결로 광주시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1심 판결을 이유로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파면했던 광주시교육청은 2심 판결에 따라 윤씨를 복직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재판 중에 관련자들을 파면해 파임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만을 강조하다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따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에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모 사무관을 해임시켰으나 검찰이 무형

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승진 비리 등 다른 사건에서는 재판 중 파면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사안에 따라 온정주의를 보여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형사판결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비리 관련자가 퇴직 때까지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파면했다”며 “행정소송 등의 추후 절차에 따라 복직이나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3분
해질 18시 44분
달출 12시 51분
달질 23시 17분

씨뿌린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21/28℃
목포	흐림	20/27℃
여수	흐림	23/27℃
나주	흐림	20/28℃
완도	흐림	21/28℃
구례	흐림	19/28℃
강진	흐림	20/28℃
해남	흐림	20/28℃
장흥	흐림	20/28℃
순천	흐림	19/28℃
영광	흐림	20/27℃
진도	흐림	20/27℃
군산	흐림	21/28℃
남원	흐림	19/28℃
옥산도	흐림	20/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위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위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06:26	11:34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여수 00:48	06:52	
			13:39	19:53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최저/최고	22/28	22/26	21/28	20/28	18/27	17/27

27일 개통 '남도해양관광열차' 미리 타보니



폼바 타령·색소폰 연주 즐기며 '가을 여행' 칙칙폭폭 '동서통합' 함께 힘차게 달립니다

11일 오전 8시에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남도해양관광열차인 'S-트레인'(5량·218석·총 길이=170m)이 미끄러지듯 승강장에 들어섰다.

지역주민 등 150명의 시승객을 태운 'S-트레인'은 출발 직후 평균 50km의 속도로 내달렸다. 객실 외벽은 쪽빛·동백꽃·대나무·학·거북선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다.

'S-트레인'은 120여원을 들여 무궁화호를 관광열차로 개량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속도는 더했지만 승차감은 더 안정되고 편안했다. 객실은 이벤트·식당·다도(茶道) 등 세 가지 테마로 분류돼 있었다.

이벤트 객실에선 폼바 타령·색소폰 및 통기타 연주가 이어졌고, 다도 객실에선 전통 차 마시는 법과 시을 행사가 열렸다. 시승객들이 객실 사이를 오가며 즐기는 사이 열차는 어느새 보성 특광역에 도착해 있었다.

열차는 광주역을 떠난 지 4시간 20분 뒤인 이날 오후 1시20분 종착지인 경남 마산역에 도착했다. 시승객들은 버스도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했다.



11일 남도해양관광열차인 'S-트레인' 이벤트 객실에서 색소폰 연주자가 시승객을 대상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는 27일 정식 개통을 앞둔 'S-트레인'은 열차 두 량이 광주~마산, 부산~여수엑스포 구간을 매일 한 차례 왕복한다.〈관련기사 11면〉

광주~마산 구간 'S-트레인'은 광주역에서 출발해 남평~보성~득량~벌교~순천~하동~북천~진주를 거쳐 마산역에 도착한다.

정차역은 주로 먹을거리·볼거리가 풍성한 곳인데, 열차는 한 역(驛)당 평균 30분~1시간 가량 머무른다.

열차로 추억여행을 떠나면서 정차역마다 지역 관광명소와 음식을 맛보는 게 'S-트레인'의 최대 장점이다. 성인 기준 편도 운임 요금은

광주~마산 구간 2만8500원, 부산~여수엑스포 간 2만6900원이다.

코레일 광주분부는 'S-트레인'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서 통합을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안 가거도 해역 진도 4 지진 발생



신안 가거도 해역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신안군 가거도 남남동쪽 60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 중 2번째로 강한 규모다.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진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이라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대구서 日뇌염 환자 위독

올해 들어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여성 1명이 일본뇌염 양성판정을 받고 병원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도모(여·49)씨가 지난달 29일 일본뇌염 양성판정을 받고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현재 도씨의 상태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끓인 물도 3~4일 지나면 미생물 증식 마시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안전

음용수 이상적 보관 실험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끓여 사용하지만 끓인 물도 실온(室温)에서 3~4일 지나면 미생물 증식 등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은 가정 음용수(마시는 물)의 이상적 보관방법을 찾기 위해 이색 실험을 했다.

음용수를 끓인 후 보관 방법을 달리해 시간 경과에 따른 수질변화를 관찰했다. 대상은 보리, 옥수수, 결명자, 수돗물 등 4종류.

약 10분간 끓인 후 실온(25~30도)과 냉장(4~5도) 보관하면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변성 대장균군의 변화를 하루 간격으로 관찰했다.

조사 결과 실온 보관의 경우 옥수수, 결명자, 수돗물은 3일째에 보리는 4일째에 일반세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100 CFU/mL)을 초과했다.

CFU(Colony Forming Unit)는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세포 또는 균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세균 집락형성단위다.

그러나 냉장 보관한 물은 모두 7일까지 일반세균이 생기지 않았다. 총대장균군, 분변성대장균군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수돗물을 끓인 후 냉장 보관하면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급수관이나 저수조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크므로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소독장치를 거치지 않은 약수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채수 즉시 냉장 보관하고 7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쁜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출입, 전주고등학교출입]

초혼		재혼	
남	女 추천회원	남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의사, 변호사	32~68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부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신동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NC점 : 062)510-7040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062)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